

전북 산림 외국인 소유 매년 급증

2015년 전년대비 20% 증가 전국 최고... 위성곤 "투자목적 소유, 공익 가치 보전방안 마련해야"

전북지역 산림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외국인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563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전국 총 1만1,131ha(4,625명) 대비 5.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726ha으

로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원(1,417ha)과 경북(1,236ha), 전남(1,178ha), 경남(1,130ha), 충북(777ha), 충남(758ha)에 이어 전북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446ha)와 인천(192ha), 세종(185ha), 부산(139ha), 서울(136ha), 울산(99ha), 대구(74ha), 광주(41ha), 대전(36ha)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총 2,277명의 외국인 6,162ha의 산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5년 총 4,625명의 외국인이 1만 1,131ha의 산지를 소유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지역별 증가율에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지역별증가율은 전북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북(12%), 대전(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이 발

표한 '2014년 기준 산림공익가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공익기능평가액은 총 126조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지경영보다는 투자목적의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콜드체인 시스템' 지원

내년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17개소 설치 신청

전북도는 원예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콜드체인 시스템'(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감치가공업체 등에 지원된다.

도는 올해 15개소(39억원)보다 2개소가 많은 17개소(52억원)를 농림축

산식품부에 신청한 상태다.

신청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온저장고·예냉설비 9개소 ▲저온수송차량 8개소 등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법인 등의 40% 이상을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면서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국내외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 의료관광 팸투어 추진

전북도가 동남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0월 도에 따르면 의료검진과 스파·해수욕·진안홍삼 등을 연계한 '전북 의료관광 팸투어'를 말레이시아와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 상품은 의료와 건강·휴양·체험·레저 등 테마별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북분자와 홍삼스파·해수욕·황토길 걷기 등 건강자원과 치즈만들기와 갯벌체험·스키장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도는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규모 홍보활동을 한다.

도 관계자는 "전통문화, 스포츠 상품에 이은 의료관광을 특색있는 관광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신임 정무부지사 사령장 교부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진흥사업 정무부지사에게 사령장 교부를 하고 있다.

도, '바다의 날 기념식' 군산 유치 신청

해수부, 11월 개최지 선정

전라북도가 2017년에 개최하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신청한 도내에서 처음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유치신청서 제출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차관, 실·국장, 과장 등을 만나 군산 개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며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전북 유치를 건의했다.

또한 이날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새만금위원회에서 김 장관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설명에 나서는 등 적극

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바다의 날은 국민들에게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현주소를 미래전망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지난 1996년부터 이뤄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는 서울과 전남이 각 5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회, 충남 2회, 경기·강원·경남·울산·인천·경북이 각 1회씩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까지 21회째 개최됐으나 그동안 전북도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한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은 군산시를 비롯한 인천시와 안산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상태로 해양수산부는 11월에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새만금 드론항공촬영 공모전' 작품접수

7일~12월 4일까지 사진·영상분야 대상... 12월 12일 발표

군산대학교가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2016 새만금 드론항공촬영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한국드론협회가 주관한 이 공모전의 주제는 "드론의 눈으로 바라본 새만금의 비전"으로, 사진과 영상 두 분야로 진행된다.

사진은 새만금 일원을 배경으로 한 드론 항공촬영 스틸 샷, 영상은 새만금의 독특한 매력을 영상으로 연출한 작품이면 된다.

사진 규격은 장축 기준 3,000Px 이상으로 Jpg로 제출 가능하다.

또한 사진의 EXIF에서 촬영지 위치 정보와 고도, 촬영 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GPS 없는 기종의 경우 항공 및 촬영허가 승인내역 등 검증자료 제출이 필수이다.

보정은 가능하지만 합성 등 사실 왜곡은 불가하다.

영상물 규격은 용량 최대 500MB 이하로 연출, 자막, 후 보정 등이 가능하되 드론 촬영분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상업용으로 사용된 작품, 타 공모전 수상작, 해외촬영 작품, 공모 기간 외에 촬영된 작품은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로, 참가자적에 제한은 없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www.dronessamangeum.com)에서 한다.

수상작은 새만금 홍보관, 새만금 사진전 등 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당선작은 12월 12일 발표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순창 장류체험관 가을 인기몰이

이달 체험인원 4000여명 기대... 인프라·마케팅 등 효과

순창 장류체험관이 가을 체험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군은 7일 현재 장류체험관 체험관광객이 10월에만 723명이며 10월 예약인원은 2,5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장류축제기간 방문인원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 군 측은 장류축제시 체험객을 포함하면 10월 한달 장류체험관 체험 인원은 4,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가을철 장류체험객이 급증하는 이유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순창장류체험관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는 물론 각

지역 주요 관광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결과다.

실제 장류체험관은 전통고추장 만들기를 비롯해 장류요리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전통튀김만들기 등 전통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통장류의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를 강화한 토마토고추장소스떡볶이 만들기를 운영해 체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개관한 용기체험

관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국내 최대 토공형 저장고인 발효소스토쿨이 상시 개방되는 등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 강화도 장류체험관의 인기엔 한몫을 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발로 뛰는 마케팅도 인기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장류체험관 운영팀은 서울 경기지역은 물론 부산·경남·충남지역 관광객이 강진산을 중심으로 순창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방문객 모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10월 방문객 중 부산덕포초등학교, 충주예성고등학교 등 부산·경남, 충남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군 측 설명이다.

군은 이번 13일 시작하는 제11회 순창장류축제를 통해 장류체험관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상설체험장도 운영한다.

토마토고추장떡볶이만들기, 고추장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루 5번 체험할 수 있다.

체험비는 1인당 2,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류경영계 전화 063-653-9916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 동 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